

현장시선



강 보 베
제주주민자치연대 2030위원장

최근 청년들의 제주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9월 통계청의 인구 이동 동향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제주 순유입 인구는 1500명으로 월평균 214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청년층에선 1260명이 순유출 됐다.

이 같은 청년층의 유출은 교육이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부분이 많지만, 높은 주거비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이주했던 이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다시 제주를 떠난다는 기사는

청년 주거정책 다각화해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이주민들이 제주살이를 포기하고 떠나며 높은 주거비에 비해 낮은 임금에 대한 답답함으로 제주를 떠나는 사연은 단골 주제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제주의 주거정책은 어떨까. 대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머물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장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은 먼 이야기다. 게다가 제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민주당·경기 광주시 갑)의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약 2082만 호의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57만 호로 7.5% 수준이다.

그러나 제주는 전체 26만6000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이 1만8000호, 민간 임대주택은 9000호였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 비중인 재고율은 6.6%로 전국 평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심지어 제주의 무주택 청년 가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호남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4년 간(2015~2018년) 제주 청년가구의 주택소유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 청년가구의 주택소유율은 34.2%로, 2015년 36.5%와 비교해 2.3%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 가구는 2015년 3만977 가구에서 2018년 3만4830 가구로 무려 15.7% 늘어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 다각화가 필요하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 전주, 광주, 천안 등 시도에선 '셰어하우스'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외에 청년층이 낮은 주거비를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늘리고 있다.

월세 지원의 경우 주거비 상승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셰어하우스

등 다른 형태의 주거 지원모델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정책적 차원이 아닌 제주개발공사의 시범으로 '청년초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모델은 집을 매입·건설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전세해 청년들에게 '셰어하우스' 형태로 공급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대비가 청년이 거주할 수 있다. 단순히 주거비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효과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현재는 소규모 차원이라 효과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제주를 떠나는 상황을 그대로 뒤서는 안 된다. 당장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제주도가 주거정책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도를 벌여야 할 때다.

사설

허수아비 행정시장만 더 늘릴 셈인가

잡잡했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시 구역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도의회도 다음달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조정 관련 토론회를 열고 공론화에 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민선7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재구성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018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2개의 행정시를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등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권고안이 그것입니다. 제주시는 현 제주시 동지역, 동제주시는 현 조천·구좌·우도·성산·표선·남원지역, 서제주시는 현 애월·한림·주자·한경·대정·안덕지역, 서귀포시는 현 서귀포시 동지역으로 각각 나뉘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문종대 의원은 '행정구역 조정 추진 TF' 구성을 주문했습니다. TF를 꾸려서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인 행정시 4개 권역 조정안을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송중식 국장은 "행정구역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시장의 권한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선부르다고 봅니다. 현행보다 행정시를 더 쪼개는 것은 다시 허수아비 시장을 늘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행정시의 기능과 시장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시급합니다. 행정시장의 경우 '도청의 과장보다 못하다'는 편견을 듣고 있었습니까.

인구대비 전국 최다인 제주 공무원 수

제주도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주민 수 대비 제주 공무원 수가 타 지역보다 가장 많다는 해석을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수는 많은데 왜 도민들이 체감하는 대민 지원 서비스의 질·양 면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냐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 자료 분석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로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 109명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904명으로 나왔습니다. 두 지역 간 격차가 9배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제주에 이어 세종(156명), 강원(239명), 전남(30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제주는 공무원 정원 수도 전국 상위입니다. 서울(1만 8700명)이 가장 많고, 부산(1만 4753명), 대구(8135명) 등에 이

어 제주(6164명)로 여덟 번째였습니다. 공무원의 많고 적음을 주민 수 대비로 기계적인 해석을 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기초 데이터이자, '판단'의 근거는 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전국 최저는 "공무원 수가 많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많은 인력에도 체감 못하는 대민 행정 서비스에 불만입니다.

도 분청에 집중된 공무원 인력 운영이 문제입니다. 올 4월 기준 전체 6164명중 도 분청 3310명(54%), 양 행정시 2854명(46%)으로 분청 집중이 두드러집니다. 행정시, 읍면동은 업무 과부하로 내부 불만도 큼니다. 도 예산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도 작년 10.7%로 전국 평균 8.1%보다 높은 상황에서 주민대비 최다 인력, 도 분청 집중까지 겹치니 개선 여지는 충분합니다. 도 조직 개편·재배치 등 인력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합니다.

열린마당

상수도 누수, 신고하세요



문 정 희
제주시 상수도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해있어 잠시도 떨어질 수 없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편리하게 쓰는 데 익숙한 요즘엔 물이 안 나오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크다.

다른 자원은 대체 가능하나 물은 대체할 자원이 없으므로 소중한 물이 느껴져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시는 물 절약 홍보와 함께 상수도 누수 저감을 위해 누수 탐사와 관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매년 누수 탐사 및 복구하고 있지만 상수도 관로가 전 지역에 깔려 있어 빠른 시일 내 누수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도로 누수는 한정된 인력으로 누수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누수 조기 발견과 복구로 안전사고와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신고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 확인 후 긴급 누수 복구 공사를 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 3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포함하여 누수 조기 발견과 빠른 복구로 수돗물 낭비 최소화로 상수도 행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상수도 공사 발주 중 누수를 신고하거나, 수용가 대지·옥 내 누수,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 신고 등은 제외한다.

이는 때보다 물의 소중함을 느끼며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하는 시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 신고가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상수도 누수사고는 신속히 발견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당부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민주당 "감사위, 서울본부 살펴보라"

원 지사 행보에 비판 일색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를 개인의 욕심을 위해 사 용하지 말고 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

도당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의 수장 원 지사는 개인적 일을 보기 위해 휴가를 내고 제주를 떠났음에도 도민과 도의회에 어떤 양해나 사과의 말도 없다"고 비판.

특히 "언론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꾸려진 도 조직인 서울본부가 원 지사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알려졌다"며 "도감사위원회가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불황에... 한국공항 자산매각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불황을 겪는 가운데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확보에 나서 주목. 22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에 따

르면 항공사 지상조업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제주도 제주시 연동 304-22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대극건설 주식회사에 200억원에 처분하기로 의결.

한국공항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하고 현금 유동성 확보 위해 자산을 처분한다"며 "22일 매매계약 체결하고 6개월 이내 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라 언급. 고대로기자

서귀포시 미분양주택 간담회

○...서귀포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하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난 21일 '미분양주택 사업주체와 간담회'를 진행.

간담회에는 현재 50세대 이상 미분양이거나 향후 분양예정 세대 수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주체와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석, 정보를 공유하며 건의사항을 청취.

시는 간담회 및 23일 미분양TF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 현병준기자

부 고
장승남(아라온해수사우나) 어머니 공산김씨 봉옥(향년 87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21일 16시 27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10월 23일(금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24일(토요일) 오전 8시
장례식장 제2분향실
장 지: 아흔아홉골 선영 (연동 2489-33)
남 편 장 상 우(배)
아 들 장 승 남 며느리 김 병 화
영 문 김 향 희
영 방 김 성 연
딸 장 경 희
혜 자
* 연락처 : 장승남 010-4448-9400
장영원 010-4921-8712
장영방 010-8660-8038

부 고
진정엽(前 명도건설 대표) 아버지 진주진공 성주(향년 89세)께서 서기 2020년 10월 22일 12시 21분경에 별세 하셨습니다.
일 포: 2020년 10월 24일(토요일)
발인일시: 2020년 10월 25일(일요일) 오전 8시 30분
장례식장: 하귀농협 장례식장 201호 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진 정 엽 며느리 김 은 희
딸 진 회 장 사 위 장 창 립
손 자 진 예 립 사 위 추 오 중 찬
손 자 진 영 성 위손자 이 해 남
손 자 진 희 성 위손자 오 승 원
손 자 진 윤 성 이 서 범
손 자 진 나 현 이 동 재
손 자 진 수 현 장 향 아
손 자 진 후 영 경
손 자 진 후 영 리
* 연락처 : 진정엽 010-3696-0384
진정환 010-2690-5710
오중찬 010-8661-5723
이해남 010-2500-855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남평문공 동하(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 인 박 순 여
아 들 문 성 윤 며느리 김 진 속
성 필 최 미 자
성 요 김 민 정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풍
제주먹고소리뿌리와등글레뿌리
* 연락처 :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